

## 오피니언

7

## 사설

## 계속된 번복, 대학 명예 실추 멈추길

작년에 이어 올해도 철학과 최정식 교수의 위안부 발언과 관련한 역사 왜곡 문제가 불거졌다. 또 한 이를 철회하는 입장장을 낸 뒤 스스로 번복하는 모습을 보이며 논란은 커지고 있다. 언론에서도 이를 주목해 여러 차례 보도하자, 그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는 잣아들 줄 모르는 상태다.

해당 발언이 나온 '서양철학의 기초' 수업은 토론 형태로 진행된다. 학생과 교수가 서로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으며 진실이라고 믿는 것을 주장하고 설득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런 점에서 최 교수 가 수업 중 행한 발언만을 놓고 본다면 본인의 해명처럼 사과가 필수적이지는 않을 수 있다. 자신이 진실이라고 믿는 것을 말했을 뿐이기 때문이다. 또한 표현의 자유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다.

하지만 최 교수가 간과하고 있는 점은 본인의 사회적 위치다. 최

교수는 대학교수다. 강단에 서서 학생을 교육하기 때문에 본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지는 파급력을 무시할 수 없다. 하지만 이번 발언과 잇따른 입장 철회 번복은 학문 연구에 힘쓰며 사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해 줘야 하는 사람의 발언이라고는 생각하기 힘들다. 최 교수는 역사를 관통하고 있는 사실을 부정하며 자신의 신념만을 근거로 수업을 진행했다.

그리고 여전히 최 교수는 논란이 된 발언에 책임지지 않고 오히려 발언 철회 이유를 '임기응변'이었다며 당당한 모습을 보인다.

최 교수가 처음으로 위안부 관련 발언을 한 뒤 약 1년이 흘렀다. 그동안 그는 두 차례 자신이 믿고 주장하는 '위안부는 자발적 매춘'이라고 발언하고 철회하길 반복 했다. 말의 중함을 잊은 채, 문제 가 된다면 철회하겠다는 그의 '아

님말고' 식의 입장은 마치 그 순간 만을 회피하는 '임시방편' 수단으로밖에 여겨지지 않는다. 말은 무겁다. 속담에 '말 한마디로 천 낭 빛을 갚는다'는 말도 있다. 최 교수는 처음 발언한 말의 무게도 무겁고 그 발언을 철회하는 말의 무게도 마찬가지로 무거워야 한다. 그러나 자신의 발언을 손바닥 뒤집듯 번복하는 최 교수의 태도는 이런 교훈이 무색해 보인다.

최 교수가 행한 두 번의 철회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있을까. 사실상 '철회'란 이미 제출하거나 주장했던 것을 다시 회수하거나 번복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최 교수의 두 번째 철회는 자신의 발언에 문제가 없다는 내용의 대자보를 붙인 지 40분 만에 이뤄졌다. 대학의 명예를 훼손한 정도에 비해 철회 입장장을 내는 시간이 짧다 보니 그 내용 역시 가벼웠다. 철회서 제출 이후 일본의 극우 매체와의 인터

뷰에서도 여전히 학교, 학생, 동문을 존중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오히려 최 교수는 대자보에서 동문회가 자신을 공격하고 있다고 말한다.

이미 뱉은 말과 이를 철회하고 다시 번복하는 모습, 그리고 본인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적반하장의 모습은 이제 진부하게까지 느껴진다. 본인이 한 말의 정당성을 지속해서 주장하는 최 교수의 발언이 맞다, 틀리다라고 이야기 할 시간도 이제는 지났다. 학내 구성원은 최 교수의 말이 맞든, 틀리든, 기성 언론을 통해서까지 벌어지는 우리학교의 명예 실추를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 포털 사이트에 경희대를 검색하면 '경희대 교수 위안부 관련 실언'이라는 뉴스만 나온다. 이제는 구성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모든 사태의 출발점이 어디부터였는지 스스로 되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 취재수첩 | 학부모 학사문의

## 캥거루 주머니

있는 문제다.

성인인 대학생의 개인정보를 쉽게 알려줄 수 없는 직원들의 입장은 난처하기만 하다. 내 아이의 정보를 묻는다고 하지만 진짜 학부모인지 직원 입장에서는 알 길도 없다. 별다른 학부모 응대 메뉴얼이 없기도 하고 이런 상황을 학부모에게 설명해 주지만 규정을 납득하지 못하는 학부모의 높은 언성에 직원들은 지쳐간다.

대입을 위한 과정에서부터 학부모의 살뜰한 보살핌을 받은 대학생은 성인이 되었음에도 진정한 독립을 이루지 못한 듯하다. 부모님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품 안에 사는 온실 속 화초와 같은 모습이다. 학부모 또한

자녀가 독립된 개체임을 인정하지 못한 채 그저 어린아이로만 치부하고 있다. 부모는 자녀가 언젠가 자신을 떠나 독립된 개체로 살아갈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그 과정에서 최선을 다해 조력해야 한다. 언제까지 캥거루처럼 부모가 학생과 소통만 제대로 한다면 학생 선에서 전부 해결될 수

이자수 기자  
ssu1404@khu.ac.kr



만평 가벼운 철회

## 경희대학교

교시 문화세계의 창조  
교훈 학원의 민주화 | 사상의 민주화 | 생활의 민주화

## 대학주보

1955년 5월 12일 창간

발행인 한준태

편집인 남윤재

편집장 이자수

서울캠퍼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회기동) Tel 02-961-0093~5

국제캠퍼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1732(서천동) Tel 031-201-3230~2

인터넷 대학주보 <http://media.knu.ac.kr/khunews>  
이메일 khunews@knu.ac.kr

제작 청솔디자인 | 인쇄 옴니피앤디

## 세시봉

## 생생전쟁통



곽다은 기자

kkyu1109@knu.ac.kr

세계는 전쟁 중이다. 지난 7일 새벽, 팔레스타인 무장 단체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했다. 이스라엘은 세계 최고의 정보력을 자랑하는 신베트와 모사드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공격에 큰 피해를 입었다. 그리고 전쟁은 시작됐다. 오랜 앙숙이었던 두 나라 간의 충돌이 거세지면서 국제 정세도 혼들리고 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전쟁의 모습이 SNS를 통해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세계 곳곳에 전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현지 통신에 의하면 지난 19일을 기준으로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사망자 수는 총 5천 명을 넘었다. 이러한 유혈 분쟁은 SNS로 전 세계에 여과 없이 생중계 중이다. 하마스는 인질의 개인 계정을 알아내 폭력적 테러 영상을 유포하고 살해 위협을 하면서 온라인 선전전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 텔레그램 계정 '가자 나우'(Gaza Now) 팔로워 수는 140만 명에 달한다.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는 무력 충돌 이후 80만 건에 달하는 폭력적인 게시물과 가짜뉴스를 삭제했지만 여전히 많은 전쟁 관련 게시물을 손쉽게 볼 수 있는 상황이다.

전쟁은 끔찍한 살인 행위를 촉발한다. 따라서 전쟁을 겪고 나면 엄청난 트라우마에 시달리기 마련이다. 그런데 기술의 발전으로 초연결 시대의 전쟁은 과거와 달리 언제든지 누구에게나 실상이 공유 가능해졌다.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접근이 가능하다. SNS가 무기화되어 전쟁의 심리전에 이용되는 이유다.

새로운 무기 앞의 반응 또한 이전과 다르다. 실제 총과 폭탄 앞에서는 두 손 두 발 다 들고 죽음을 두려워한다. 하지만 화면 속 재생되는 영상은 그저 작은 네모 속에서 쏟아져 나오는 온갖 콘텐츠 중 하나에 불과하다. 공격 대상이 불분명하기에 SNS라는 신무기는 손가락이 스쳤다는 이유로 마음껏 폭격을 날린다.

보이지 않는 공격에 대한 대처는 늦을 수밖에 없다. 공격으로 입은 상처 또한 바로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화면 너머로 겨우진 종구에 대한 안전망이 시급하다. 세계는 물리적 거리를 초월한 잔혹함에 '좋아요'를 누르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